

“스님-신도 신분아닌 계율차이”

교불연 '사부대중의 관계' 세미나서 제기

“상호 보완·평등관계 유지해야”

“한국 불교의 미래는 사부대중의 제자의 찾기와 이를 토대로 원만한 불교공동체를 이룰 때 기약할 수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사부대중의 관계 정립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불교학술대회에서 박선영·김호성(동국대), 김용철(중앙승가대), 이광래(총남대) 교수 등은 새천년을 향한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자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사명과 역할(김용철), '우바새와 우바이'에 대한 인식과 변천사(김호성) 등에서, 두 교수는 부처님이 승가(출가)와 재가의 차이를 둔 것은 신분상의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율의 차이에서 구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승가와 재가는 상하 관계로서 바라볼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

달 수 있도록 서로를 끌어주는 보완 관계라는 것이다.

김용철 교수는 “승가는 수행에 정진해 인류가 의지할 수 있는 등대, 즉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며 승가의 변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승가의 교학 체계를 바로 세우고 또 현대적인 계율을 정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종권의 집착과 갖은 분규는 수행과 교학 체계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는 승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97년 한국갤럽의 '종교단체의 역할 수행에 대한 종교인의 평가' 조사에서 불자의 만족도는 약 64.5%로 타종교(천주교 92.1%, 개신교 79.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호성 교수는 “대승불교에서 재가자는 ‘법의 포교자’ 법의 실천자’로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보살행원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재가자의 지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해 재가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초기불교에서 재가자는 ‘공양자’ ‘외교자’ ‘청법자’ 등 수동적인 모습이었지만, 대승 경전인 ‘유마경’ ‘승만경’ ‘화엄경’의 유마거사, 승만부인, 재가선지식 등과 같이, 타인을 깨달음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이르러 상호 보완·평등 관계로 사부대중의 위상이 변하고 있는 만

름, “연기법의 차원에서 ‘불이 아닌(不二)’ 원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교공동체의 실현”에서 “출가자나 재가자는 각각의 본분에 충실하며, 공동체 의식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박선영교수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광래교수는 ‘연기법’에서의 재가와 출가의 관계에서 “재가와 출가는 공동운영체”라며 “재가와 출가가 함께 사찰과 삼보장재를 관리하고 중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며 재가의 적극적인 교단 운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내 것만 절대선, 남의 것 배타’ 화합-공존 해치는 구시대 유물

정대스님, 평화방송 인터뷰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케이블TV 평화방송에 출연해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7일 총무원장실에서 가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것만이 절대선이고 남의 것은 배타해야 한다는 생각은 화합과 공존의 시대인 현대에는 소멸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지적하고 “종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며, 증생과 인류를 위해 복을 짓는 일이 된다”며 불교와 천주교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宗)의 가르침(敎)이자 실천적인 덕목이 바로 종교”라고 강조한 정대스님은 이어 “예수님 친척 행동양식에서는 서로 다름이 없다”며 “고통받고 소외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해야 할 종교인의 사명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대스님은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0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민족의 가장 큰 현안인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분위기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정서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종교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방송은 정대스님과의 인터뷰를 10일 ‘테마리포트,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방송했다.

정성운 기자

“남북 종교인 교류 통일 밑거름”

통일문화 준비 토론회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과 통일정진불교연대(운영위원장 성태용)는 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화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괴리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정부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이제 서로 보완해

야 할 시점에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고려대 강만길 명예교수는 “적극적 화해정책을 펴는 정부아래에서의 민간통일운동은 비판적부족이고, 비판적부족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간차원의 식량·비료 등 북쪽돕기운동은 물론 종교계의 북쪽 종교인 초청 등을 통해 민간인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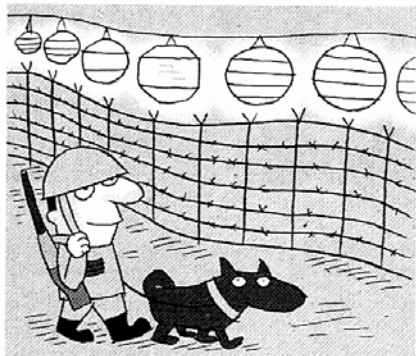


스님과 함께 춤을

제1회 불교사 아간 거리축제가 부처님오신날 11일 저녁 사부대중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은사 앞 도로에서 열렸다. 이번 아간 거리축제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하늘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나주시는 모습

을 현상적으로 재현, 눈길을 끌었다. 10개의 캐릭터 인형이 벌인 퍼레이드(사진)는 젊은층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민중, 코요테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스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펼쳤다.

현대만평 박구원



통일을 기원하며...

태고종 총무원장협의회 결성

19일 창립...친목도모·정책 개발 목적

태고종(총무원장 인국) 산하 전국 시도 교구 총무원장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종단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협의할 ‘태고종 총무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된다.

인천총무원장 대은스님 강원총무원장 백운스님 충북총무원장 성수스님 대전총무원장 월해스님 경남총무원장 월봉스님 등 태고종 전국 19개 교구 총무원장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협의회 구성에

합의.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 총무원장들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태고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종무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외호단체로서 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무원장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 대은스님은 “태고종의 각 종무원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활동도 활발한 만큼 각 교구가 연대하고 상호지원할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총무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서 스스로를 묶는 수행도 함께 하는 기회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도 최근 종무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협의회가 창립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숙 기자 (glslee@buddhapia.com)

개신교 목회자 60여명 깨달음 찾아 禪수행

‘예수살기모임’ 95년 결성
월간 ‘풍경소리’도 펴내

최근 종교간 협력과 화해무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목회자 60여명이 불교 선수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서 화제다.

95년 동양사상에 심취하여 기독교와 동양사상의 접점을 나선 이현주 목사(감리교신학대 강사)의 뜻에 동참한 전국적 기독교 목회자 60여명으로 구성된 ‘예수살기모임’이 그들.

예수살기모임은 불교적 깨달음을 찾기위해 금강경, 인도 불교서적등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월 1회 함께 공부하며, 여름·겨울에는 참선수련회와 법문(정토회 지도법사)스님 초청 세미나를 갖고 있다.

‘좋은 것일수록 나누는데 힘쓰



자’는 뜻을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예수살기모임은 99년 6월 잡지·출판사인 풍경소리사(대표 김민해

목사)를 등록하고 5월까지 통권 12호를 발간한 월간(풍경소리)과 탁남한 스님의 글을 모은 ‘읽을거리 3’, 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동양의 가르침 등 5종의 단행본도 각 7~800여권의 발간해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정은숙(광주 청솔화원)씨는 “몸으로 읽는 경전 ‘금강경 읽기’를 파란색 연필로 밑줄 그어가며 보면서 내용들을 내 안에 담아두곤 한다”며 “삶을 소중히 생각하게 해주는 <풍경소리>는 잃어버린 참 나를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평화실현 차원 허용”

KCRP, 정부에 촉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최창규 회장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종교간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달라이라마의 9월초 방한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외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평화를 실현

한다는 차원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달라이라마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달라이라마 방한추진 범불교대책위원회’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축이 되어 초청한다면 정부나 중국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특집 스포츠조선과 함께하는
연애탄던너 데미도탐방 ₩440,000

- 일 정: 부산 - 대마도 - 부산(2박 3일)
- 포함사항: 선편, 전 일정 숙박, 관광, 역사학자 및 현지안내인 동행, 보험
- 출발일: 5/19 6/2, 4(금) - 20명 선착순

신영훈과 함께 연애탄과 대마도를 탐방합니다.
(신영훈 원장의 특강)
▶ 신영훈(申榮勳) 연혁
1935년 개성에서 출생.
1959년부터 국가지정 중요 국보·보물 보수에 종사. 문화재전문위원(1962~1999)이었으며 법연사 불일문화원 원장,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
주요 작품은 송광사 대웅보전, 보탑사 3층석탑, 저서로 「한국의 궁실 건축」, 「우리 문화 이웃 문화」 등 다수.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Jeep(4인탑승), 중국비자, 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 영어가이드, 보험
- 출발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佛子世界
결망대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大地 티벳 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시간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 일 정: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 출발일: 매주 화, 목, 토, 일(개별출발)

실크로드(Silkroad)
長安에서... 쿤지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 서양을 넘나들던 구름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21박 22일] 서안-난주-가옥관-동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발일: 5/29, 6/12, 26/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행사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조진법륜지, 열반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 일 정: 델리-바라나시(노약자)-부다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립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르(열반사, 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인, 전용차량
- 출발일: 5/28, 6/11, 7/2, 16 목, 일(15명이상 출발)

도반과 함께 - 네팔 히말라야 순례를...
실산 순례 (트레킹) ₩1,290,000

도반과 동행시 도반의 경비는 ₩1,190,000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지인 히말라야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인니푸르나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순례후 네팔과 방콕 그리고 인도의 성지를 개별적으로 순례하시고 델리 또는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1년 항공권)

- 일 정: 카트만두-히말라야 순례-포카라-카트만두-방콕(8박9일)
- 포함사항: 항공료, 숙소(조식포함), 국내선, 현지안내인(산길안내)
- 출발일: 5/23, 30, 6/6, 13 매주 화, 목, 토 (2명이상 출발)